

〈춘향전〉의 정전화 과정과 교과서 수록

이지영*

1. 서론
2. 20세기 전반 <춘향전>에 대한 인식 변화
3. <춘향전>의 '정본(定本)' 선정 과정
4. 해방 이후 <춘향전>의 교과서 수록
5. 결론

〈국문초록〉

1910년대까지 <춘향전>은 대표적인 통속소설로 향유되었는데, 민중문학론이 대두되고 경성제국대학에서 학문적 대상으로 연구되면서 통속소설에서 가치 있는 옛 소설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정본(定本) 선정하는 일도 문제가 되었는데, 완판본 84장본이 판소리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되었으면서도 오래된 텍스트로 인정받았다.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춘향전>의 가치와 완판본 84장본의 정보로서의 지위는 해방 이후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강화되었다. 완판 84장본 <춘향전>은 해방 직후 과도기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 『고등국어3』에 줄곧 수록되면서 대표적인 '민족의 고전'으로 존재하였는데,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춘향전>의 수록대목과 수록텍스트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족의 전통이 강조된 '고전'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현재적 의미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춘향전>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가치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핵심어: <춘향전>, 경성제국대학, 정전화, 국어교과서, 고등국어, 84장본, 국민고전.

1. 서론

20세기 이전 판소리 <춘향가>는 상층과 하층에서 두루 향유되다가 방각본으로 간행되고 세책가에서 유통되면서 소설 <춘향전>으로 정착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신문에 연재되고 활자본으로 출판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여러 차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¹⁾ 이러한 상황은 해방 이후까지도 이어졌다. 이 점에서 <춘향전>은 20세기 이후 통속문화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춘향전>은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는데, 이는 통속문화로 수용된 것과는 다른 맥락이었다. 즉, 20세기 초 통속소설로 인식되었던 <춘향전>은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전통과 고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그 결과 해방 이후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었다.²⁾

이렇게 보면 20세기 이후 <춘향전>은 ‘통속’과 ‘고전’의 두 가지 의미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춘향전>의 두 가지 측면은 한동안 ‘대중문화’와 ‘교과서’라는 이질적인 영역에서 지속되었다. 즉, <춘향전>은 인기 있는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인 동시에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는 <춘향전>에 내재된 본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통속문화에 속하는 <춘향전>에 ‘고전’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춘향전>의 ‘고전’으로서의 의미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형성되었다.³⁾

이 점은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의 변화로도 알 수 있다. <춘향전>

1) <춘향전>은 해방 이전 1923년 최초의 상업영화로 제작되었고 1935년 최초의 유성영화로 제작되었다.(허찬, 『영화 <춘향전>(1923년작)의 지향』,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526~527면 참조)

2) 이러한 과정에서 대해서는 이지영, 『일제 강점기 고소설의 ‘고전’ 형성 맥락』,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참조.

3)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18~20면 참조.

은 오랫동안 교과서에 수록되었지만,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간행된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중에는 <춘향전>을 본문에 수록하지 않은 국어교과서도 등장하였다. 오랫동안 ‘전통’과 ‘고전’의 대표작이었던 <춘향전>의 위상에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전반 <춘향전>의 정전화 과정과 해방 이후 교과서 수록양상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춘향전>의 ‘고전’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논의한 바 있지만,⁴⁾ 고소설 전반에 대한 논의에서 <춘향전>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방 이후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춘향전>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2. 20세기 전반 <춘향전>에 대한 인식 변화

2.1. 통속소설 <춘향전>

<춘향전>은 ‘판소리’로 향유되다가 독서물로 정착하여 ‘소설’로도 읽혔다. 소설 <춘향전>은 20세기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20세기 초 소설 <춘향전>에 대한 당대 지식인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춘향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① 由來春香傳이니 趙雄傳이니 荒淫虛誕 諺文古談冊을 閭巷間에서 成風히 愛讀하미 婦人의 思想과 愚夫의 志概가 因此而腐敗하더니 有志之士들이 此를 慨歎하야 歐米列強에 建國하며 愛國하던 英雄의 實蹟을 純國文으로 新編發刊하야 婦人社界에 愛覽을 供하니 從此로 愛國思想이 感發하고 風習이 改良하리로다.(『대한매일신보』, 1907. 12. 21.)

위의 기사에서 <춘향전>은 <조웅전>과 함께 통속적인 구소설을 대표

4) 이지영, 앞의 논문.

하는 소설로 거론되고 있는데, ‘婦人의 思想과 愚夫의 志概를 부패시키는 황음허탄한 언문고담책’으로 비난받고 있다.

게다가 당시의 창극공연은 <춘향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였다. <춘향전>은 당시 극장무대의 인기 레파토리였는데, 20세기 협률사로부터 시작된 근대식 극장이 다음 기사에서처럼 남녀가 만나는 음란한 곳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⁵⁾

○ 경찰과장 이현규씨는 제작야에 장안사 연극장을 시찰하다가 <춘향가> 제 2회는 傷風敗俗에 연극이라 호야 즉시 設行을 금지하였다더라. (『<춘향가>금지』, 『매일신보』, 1910.9.15.)

○ 장안사에서는 소위<춘향가>와 심청가로 演戲을 每夜設行함으로 淫婦蕩子가 會同親覽호는디 기중 부랑자제들은 婦人席을 대호야 悖言妄談을 가호며 혹은 猥褻호는 행동이 往往有之호는디 再昨夜에는 觀光人이 男女勿論호고 팔백 명 이상에 달호는디라. (『매일신보』, <演戲場惡弊>, 1910.10.2.)

이러한 연극장 단속의 이면에는 식민지를 통제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숨어 있지만,⁶⁾ 이를 인정하더라도 연극장과 <춘향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부정적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제의 연극장 단속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실제로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게다가 <춘향전>의 첫날 밤 장면의 음란성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기에, 연극장에서 공연될 때 이러한 면이 더욱 부각되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춘향전>의 통속적 이미지는 이해조가 개작한 <옥중화>의 활자본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활자본 고소설은 “4호 활자로 찍어낸 울긋불긋한 책”⁷⁾으로 ‘딱지본’이라 불린 점에서 짐작되듯 ‘저급한 독서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활자본 소설에 대한 비난도 계속되었는데, 1925년 『동아일보』의 독자는 출판사에서 사회문화를 위하여 유명한 문예서류전집이나 사상서류전집은 발간하지 않고 울긋불긋한 <춘향전>, <토끼전>을

5) 창극 <춘향전>에 대해서는 백현미, 『한국창극사 연구』, 태학사, 1997 참조.

6) 이지영, 『<옥중화>를 통해 본 20세기 초 ‘춘향형상’의 변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50~51면.

7)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년 4월 17일.

발간하고 있다며 개탄하기도 하였다.⁸⁾ 이는 유명한 문예서적이거나 사상서적을 읽는 독자층과 활자본 고소설을 읽는 독자층이 분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⁹⁾ 당시 <춘향전>은 지식인이 읽는 소설이 아닌 어린아이들이나 노동자 농민이 읽는 소설이었다.¹⁰⁾

그리고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춘향전>은 점차 시골에서나 읽는 소설이 되었다. 이 당시 상황은 다음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팔리는 책으로는 서울서는 잡지의 『어린이』, 『신소년』, 『별건곤』, 『동광』, 단행본의 『사랑의 선물』, 세계일주 동화집, 사회주의 가튼 것을 만히 찾고, 시골 주문에는 소설의 <춘향전>, 심청전이 제일 많고(<춘향전> 1시간 4만부 인쇄하는 것은 월전에 나도 목도) 私塾 교과용으로 사서삼경이 약간 있다 한다.(『大京城白晝暗行記』, 『별건곤』 2호, 1926.12.1.)

위의 기사를 통해서 1926년까지도 활자본 <춘향전>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점과 그 인기는 주로 ‘시골’ 독자층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춘향전>을 소설·영화·연극·소리 등으로 다양하게 경험했다는 이태준이 “소설로 읽을 때 느끼던 어색과 허풍이 소리판에서는 모다 격에 맞고 필연으로 발전”하며 “무대에선 보기에 저열하던 러브신이 소리판에서는 시전풍의 숙인군자로 나온다”고 한 말¹¹⁾을 주목해 보면, 판소리

8) “시대에 순응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도서회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역시 울긋불긋한 <춘향전>, 토끼전 등 밖에는 발간할 수가 없습니까. 좀 사회문화에 힘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예서류전집이나 사상서류전집등을 발간할 수는 없습니까.”(평양개탄생, 『이것도 불평』, 『동아일보』, 1924년 1월 18일)

9) 천정환은 1920년대 소설 독자층을 취향과 교양에 따라서 ‘전통적 독자층’과 ‘근대적 대중독자’,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나누고 소설독자를 무식한 노동자와 농민으로 보는 지식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52~90면) <춘향전> 출판을 개탄하는 『동아일보』 독자의 발언은 당대 엘리트 독자의 의식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10) 박태준이 “<춘향전>, 심청전류의 구소설을 탐독하기는 취학이전이거나 정발 문학서적류와 친하기는 부속보통학교 3~4학년때”(『문장』 2권 2호, 1940년 2월)라고 한 것을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인 1910년대에 <춘향전>은 ‘문학서적류’가 아닌 어린아이나 읽는 통속소설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이태준, 『<춘향전>의 맛』, 『문장』 2권 7호 9월호, 1940.

<춘향가>가 소설이나 창극과는 달리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즉, 소리판에서 판소리 <춘향가>는 감상할 만한 노래로 향유되었으며 소설과 달리 ‘예술’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판소리를 예술로 수용하는 태도는 이미 19세기 정현석의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정현석은 판소리의 서사성을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창부의 음악적 수련을 강조한 바 있다.¹²⁾ 이는 판소리가 상층에서 향유되기 시작하면서 ‘음악성’이 중시되었음을 말한다. 판소리를 음악으로 향유하는 것은 <춘향전>이 활자본 소설로 간행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유성기 음반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 <춘향전>을 대표하는 것은 활자본 소설이었다. 활자본으로 출판된 <춘향전>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통속적 문화상품으로 소비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유치하고 저급한 구소설로 인식되었다.

2.2. 인식변화의 계기들

선행연구에서는 <춘향전>이 민중문예론의 맥락에서 재해석되면서 통속성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났다고 논한 바 있다.¹³⁾ 민중문학론은 1922년 『개벽』 26호와 27호에 <민중예술론>(김억 역)이 수록되는 등 1920년대 초반부터 지식인의 관심을 받았는데, 민중문학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자본 고소설은 노동자 농민이 즐겨 읽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주목되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염상섭의 <소설과 민중>이다.

(파멜라와 <춘향전>의 내용은 모두) 서민계급이 특권계급에 대하여 승리하였다거나 혹은 계급의식이나 인습도덕에 반항하고 인물본위와 도덕관념으로 평등사상을 고조한 것이라 볼 것이다.(염상섭, 『소설과 민중: 조선과 문예』, 『동아일보』, 1928.5.31.)

<춘향전>은 이전까지 춘향의 정절, 혹은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춘향의 정절을 유가적인 ‘열’과 결부시키곤 하였다. 그런데 염상섭은 <파멜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춘향

12)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04~105면 참조.

13) 이지영, 앞의 논문, 2014, 46~47면.

전>을 특권계급에 대한 서민계급의 승리로 재해석했다. 이렇게 되면 <춘향전>은 단지 노동자 농민에게 인기 있는 통속소설이 아니라 봉건적 제도에 반항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으로 평가된다. <춘향전>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염상섭의 글은 중요하다.

<춘향전>에 대한 염상섭의 이러한 시각은 김태준에게 수용되었다. 김태준은 1930년부터 1931년까지 『동아일보』에 <조선소설사>를 연재하였는데, 그 중 ‘결작 <춘향전>의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춘향전>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춘향전>을 “민중의식을 고취, 서민계급의 승리와 계급의식 혹은 인습도덕에 관한 반항과 인물본위 도의관념(道義觀念)으로서의 평등사상 고취”한 결작이라 평가했으며 염상섭의 <소설과 민중>에 의거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태준은 염상섭의 글 외에도 김종무의 <아관춘향전(我觀春香傳)>도 인용했는데, 이 또한 <춘향전>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단서이다. <아관춘향전>은 1928년 경성제국대학 예과학우회에서 간행한 『청량』 6호에 실린 글이다. 김종무는 이 글에서 ‘농부가 장면’ 등을 예로 들며 <춘향전>은 하층계급의 저항의식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¹⁴⁾ 그리고 호소이 하지메의 『조선문학결작집』에 수록된 <춘향전>을 ‘영터리 번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¹⁵⁾ 이는 호소이 하지메가 농부가 장면을 생략하여 <춘향전>을 민중의 저항보다는 사랑이야기로 읽히도록 번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종무의 <아관춘향전>이 호소이 하지메의 번역본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호소이 하지메의 번역은 <춘향전>에 대한 재인식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태준이 <조선소설사>에서 ‘결작 춘향전’이라 지칭하게 된 것도 호소이 하지메의 영향이 아닐까 한다. 호소이 하지메는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의 조선 소설에 ‘결작’이라는 호칭을 붙여 전집으로 간행했다.¹⁶⁾ 호소이 하지메가 ‘결작’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판매를 위한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근대적 지식인이 이들 고소설

14) 김종무, 『我觀春香傳』, 『청량』 6호,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8, 48면.

15) 같은 글, 46면.

16) 『조선문학결작집』 편찬에 대해서는 이상현, 『<춘향전>의 번역과 민족성의 재현』, 『개념과 소통』 16호, 한림과학원, 2015. 『조선문학결작집』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을 재조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종무가 호소이 하지메의 번역본을 타다(多田) 교수를 통해서 접하였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타다가 경성제대 예과 교수였다는 점에서, <춘향전>이 근대적 학문의 대상으로 자리매김 되는 데 경성제대가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옛 소설이 학문의 대상이 되었던 데에는 ‘민중’에서 ‘국민’을 발견한 근대 일본학문의 영향이 있었던 듯하다.¹⁷⁾ 조윤제가 1929년에 졸업논문으로 <조선소설의 연구>를 제출하였다는 사실¹⁸⁾에서도 ‘조선의 옛 소설’ 연구가 경성제대를 통해 수용된 일본학문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옛 소설에 대한 연구가 단지 호소이 하지메나 경성제국대학과 같은 일본의 영향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김태준은 <결작 <춘향전>의 출현>에서 ‘육당한필’을 참조했다고도 하였다. 최남선은 1913년 신문관에서 『고본<춘향전>』을 간행한 바 있는데, 그 서문에서 “此種書에 通弊되던 淫亂 分子를 一剷除去”한다고 하였고 “最詳細한 <춘향전>의 唯一正本”이라고 광고하였다. 또한 계명구락부를 조직하여 조선말과 글을 연구하고 고서간행을 하였다.¹⁹⁾ 조선의 고전에 대한 육당의 이러한 노력은 김태준이 <춘향전>을 연구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남선의 국학연구와 경성제국대학에서의 조선문학 연구는 1920년 후반부터 뚜렷한 사조를 이룬 고전부흥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사조에 힘입어 조선의 ‘옛것’이 저급한 통속물이 아니라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춘향전>은 통속이 아닌 ‘고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²⁰⁾

17)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편, 앞의 책, 45~50면.

18)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서울대 박사논문, 1998 참조.

19) 계명구락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용호, 『계명구락부의 조선어사전 엮기』, 『명지대학교논문집』, 1978 참조.

20) 이 과정에서 삼천리사의 『근대문학전집』 간행처럼 ‘고전’으로 포장하여 통속을 상품화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이지영, 앞의 논문, 2014, 48~50면.) 그러나 고소설이 점차 대중적 인기를 잃어가면서 통속성에 대한 인식은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춘향전>의 ‘정본(定本)’ 선정 과정

<춘향전>은 이본이 많은 데다가 이본 간 편차가 크다. 어떤 이본인가에 따라 춘향을 비롯한 등장인물의 성격에서부터 주제의식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춘향전>이 통속소설로 수용될 때에는 이런 점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이해조의 <옥중화>나 이광수의 <춘향>(〈일설춘향전〉)처럼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 개작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존의 춘향이야기를 흥미롭게 개작함으로써 당대 대중의 취향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춘향전>’이 가치 있는 ‘옛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본(定本)’을 정해야 한다. 작자도 없고 원본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텍스트를 ‘정본’으로 정하자면, 무엇을 <춘향전>의 본질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이명선이 1938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게재한 <춘향전과 이본 문제>가 주목된다. 이명선은 <춘향전>을 염정소설로 보려는 시각과 계급소설로 보려는 시각을 나누어 정리하면서 이본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이명선은 활자본인 한남서립본과 필사본 2종, 중앙인서관본을 비교하면서 이 중 필사본인 박씨본²¹⁾과 중앙인서관본은 “평민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리얼리스틱하게 표현”²²⁾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도남 조윤제는 당시에 입수할 수 있는 <춘향전> 이본을 가능한 모두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문을 『진단학보』 11호와 12호에 걸쳐 발표하였는데, 이본에 대한 도남의 시각은 이명선과는 달랐다. 이명선이 각 이본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주목한 반면에, 도남은 ‘원본’에 대한 관심에서 이본을 연구하였다. 즉, “원작자가 미상하기 때문에 원본을 상고하기에 극히 곤란을 느끼게 되어 이 이본연구에 그 근본적 토대를 박약하게 하였다”²³⁾고 하면서 그가 수집할 수 있는 이본을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각 이본

21) 이명선은 주석에서 송신용에게 구입한 필사본으로 밝힘. 이명선이 『문장』 2권 10호에 게재한 <이교본 춘향전>과 동일본인 듯하다.

22) 이명선, 『<춘향전>과 이본문제4』, 『동아일보』, 1938. 8. 4, 3면.

23) 조윤제, 『<춘향전> 이본고1』, 『진단학보』 11, 진단학회, 1939, 95면.

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로 볼 때, 원본을 추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이본연구를 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본에 대한 시각차는 정본 선정의 차이로 연결되며, 정본에 대한 시각은 고전문학전집 출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춘향전>을 고전문학전집에 넣어 출판한 것으로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²⁴⁾ 먼저 1934년 중앙인서관에서 ‘조선문학전집’의 제 5권 『소설집1』에 <춘향전>을 수록한 것이다. 이 책에는 <춘향전> 뿐만 아니라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홍부전>, <장끼전>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교열자는 김태준이었는데, 최남선의 <고본춘향전>을 내용에 따라 6개의 장으로 나누어 재편집하고 순한글로 실었다. <고본춘향전>은 앞서 언급한 이명선의 논의에서 ‘평민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나타난 이본으로 평가된 바 있어 정본에 대한 김태준의 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춘향전>은 그 뒤 1939년 1월 동시에 간행된 박문문고 총서와 조선문고 총서의 하나로도 간행되었다. 박문문고와 조선문고의 <춘향전>은 출판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30전으로 동일하여 경쟁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때 선택한 텍스트는 양쪽 모두 완권 84장본이었다. 박문문고의 『교주춘향전』은 조운제가 작업한 것으로, 조운제는 서문을 통해 “경판본은 스토리를 주로 하여 그 분량이 적고 완판본은 가곡을 주로 하여 그 분량이 훨씬 많아졌다”고 하면서 원본으로는 경판본이 더 가까울지 모르지만, “춘향전다운 점은 아무리 하여도 그 희곡적 방면”에 있다고 밝혔다.²⁵⁾ 김태준이 교열한²⁶⁾ 조선문고본에서 84장본을 선택한 이유도 비슷하다. 기획자인 임화는 ‘例言’에서 “유포본 중에서 最古의 것이라 사유되는 것으로 전문가 간에 약 80년 전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더 오래된 것이 원형에 가깝다고 보아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4장본을 선택한 것이다.

김태준 또한 임화의 생각과 같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1935년 『동아일보』에 게재한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에서 원본을 알 수 없기에 편의상

24) 삼천리사에서 간행한 『근대문학전집』은 실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25) 『초판서의 교주자의 말』, 『교주춘향전』, 박문서관, 1939, 9~13면.

26) 동아일보 1939년 4월 22일 하단의 조선문고 광고면에서 김태준이 교열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신문관의 <고본춘향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²⁷⁾ 이후 『증보조선소설사』에서는 이 대목을 “가장 오래으리라고 생각되는 전주도판 <춘향전>(열녀춘향수절가)”이라고 바꾸었다.²⁸⁾ 조선문고의 『원본<춘향전>』에는 <춘향전의 현대적 해석>이 함께 실렸는데, 본문에서는 대상이본에 대한 언급이 84장본으로 바뀌었지만 주석에서는 그대로 <고본춘향전>을 인용하는 착오가 있다. 그 뒤에 나온 『증보조선소설사』에서는 해당 인용부분을 모두 『원본<춘향전>』의 것으로 바꾸었고 대체할 내용이 84장본에 없는 것은 아예 삭제하였다.²⁹⁾ 아마도 뒤늦게 84장본이 원본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고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완판본의 현황에 대해서는 『문장』 2권 2호에 실린 윤규섭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윤규섭은 자신이 어릴 적 재미있게 읽던 책이 양씨집안에서 경영하던 책방에서 간행된 것이었다는 점을 후에 알았는데, 그때는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했다.³⁰⁾ 양씨집안의 책방에서 간행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완판 방각본 소설들이다. 그의 글은 통속소설로 팔려나갔던 완판본이 1940년 무렵 ‘옛것’이 되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완판 84장본이 활자본에 앞선 시기에 유행하였던 ‘각본(刻本)’이며 당시에는 사라져가는 옛것이었던 점에서 주목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김태준과 조운제의 <춘향전>은 출판방식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김태준은 <춘향전>을 순한글로 수록한 데 반하여, 조운제는 ‘교주’라는 형식을 취하였고 한자를 병기하였다. 김태준은 <춘향전>이 ‘평민문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순한글로 간행한 반면, 조운제는 <춘향전>의 ‘교주본’을 통해서 <춘향전>이 조선의 문화적 전통을 담고 있는 ‘옛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도남에게 <춘향전>은 함께 즐기는 통속소설이 아니라 문장과 어휘의 의미를 연구해야 하는 ‘옛것’이었다. 그렇기에 도남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지 않고 음란한 대목을 삭제했다. ‘옛것’의 가치를 높

27) “수많은 <춘향전> 속에 어느 것이 가장 오래고 원본에 가깝다는 고증이 없는 한 정당한 텍스트를 선택하기도 어렵다. 나는 편의상 최창선편 고본<춘향전>(신문관판)에 의하여 이 논고를 나린다.”

28) 김태준, 박희병 교주, 『(교주)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87면.

29) 예를 들면 1935년 1월 10일자 3면에 있는 주1부터 주5까지의 내용이 『증보조선소설사』에서 모두 생략되었다.

30) 『완판』, 『문장』 2권 2호, 1940.

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점에서 김태준과 조운제는 정본에 대한 태도가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¹⁾

이처럼 조선문고와 박문문고 총서로 간행된 <춘향전>이 모두 84장본이었지만, 완판 84장본이 ‘정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84장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인정되었지만, 어떤 것이 <춘향전>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1940년 『문장』에서 <춘향전>의 대표 이본들을 게재한 것은 84장본이 정본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상황을 반증한다. 이때 『문장』에 수록된 <춘향전> 이본은 <고사본 춘향전>(일명 이고본), <고본춘향전>, <보성전문학교장본(고대본)> 등 3종이다. 3종만을 수록한 이유는 고대본을 수록한 3권 4호를 마지막으로 『문장』이 폐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이본을 정본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84장본 이외의 다양한 이본의 존재를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84장본의 정본으로서의 위치는 불안정했다고 할 수 있다.

4. 해방 이후 <춘향전>의 교과서 수록

4.1. 건국 후 교과서 편찬 및 <춘향전> 수록 과정

해방 이후 중등교육 국어교과서는 1946년 9월에 처음 간행되었다. 1945년 9월 군정청에서는 교육자문기관으로 조선교육위원회를 조직하였고 1946년 7월에 편수국을 두어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³²⁾ 그러나 건국 초기에 국어교과서 제작을 주도한 것은 민간단체인 조선어학회였다. 조선어학회에서는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5일 임시 국어교재 편찬을 결의하고 9월에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두었다. 교과서 편찬을 위한 재정

31) 이에 대해 조운제와 김태준의 차이가 아닌 박문문고와 조선문고의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태준이 이전에 중앙인서관에서 간행한 <춘향전>과 조선문고의 <춘향전>은 텍스트가 바뀌었을 뿐 편집방식이나 지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볼 때, 조운제와 김태준이 출판사의 기획의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향에 맞는 출판사를 선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2) 허재영, 『건국기의 중등 국어교과서 연구-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참조.

과 인력이 마련되지 않았던 미군정청에서는 국어교과서 편찬을 조선어학회에게 일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하고 군정청문교부(1948년 이후 문교부)에서 간행한 『중등국어교본 상』이 1946년에 간행되었고, 뒤이어 『중등국어교본 하』가 1947년에 간행되었다.³³⁾ 이 중에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해당하는 것이 『중등국어교본 하』이다.

『중등국어교본』은 단원 구분 없이 여러 글을 나열하여 수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논설문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문학작품의 비중은 낮고 소설은 한편도 수록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근대 이전 문학작품의 비중이 낮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중등국어교본 하』에 실린 조운제의 <국문학의 고전>에서는 국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통시적으로 나열하고 시가와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 편찬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별도로 간행한 ‘인정교과서’ 중에서 문학작품만을 별도로 수록한 것이 상당수 있어,³⁴⁾ 실제 학교수업에서 『중등국어교본』의 사용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건국 이후 1차 교육과정 이전까지의 과도기³⁵⁾에는 중등국어와 고등국어 가 각각 세 권으로 간행되었다.³⁶⁾ 그리고 학기별로 분권되기도 하고 수록문이 교체되는 등의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1957년 1차 교육과정 제정 이전까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이 시기의 『고등국어3』에서는 문학작품이 본격적으로 수록되는 가운데 근대 이전의 어문학 텍스트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춘향전>이 교과서에 수록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 시기 교과서는 단

33) 초기의 국어교과서 편찬위원은 다음과 같다. 집필: 이희승, 이태준, 장지영, 이호성, 윤성용, 이승녕, 정인승, 윤재천, 윤복영, 심사: 방종현, 이세정, 양주동, 조병희, 주재중, 위원: 이극로, 최현배, 김윤경, 김병제, 조운제, 이은상.(허재영, 같은 글; 정영훈, 『미군정기 국어교과서의 편찬과정 재론-조선어학회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달밭』 50, 2012 참조.)

34) 이기대, 『교수요목기 교전문학 관련 교과서의 체제에 대한 연구』,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참조.

35) 이 시기는 ‘교수요목기’, ‘건국 과도기’, ‘과도기’ 등으로 지칭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허재영, 『과도기의 국어과 교과서』, 『교육한글』 16·17, 한글학회, 2004를 참조하여 ‘과도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6) 조희정, 『교과서 수록 고전 체제 변천 연구』,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282~283면에서는 ‘중등국어’ 교과서가 모두 6권으로 나누어 간행되었다고 하였는데, 필자가 확인한 것은 중등국어 1~3권의 세 권이다.

원 구분 없이 수록문을 배열하였는데, ‘고전’ 텍스트를 뒷부분에 실었다. 이 중 소설은 <왕랑반혼전>과 <춘향전>이었다. 이러한 체제는 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부터 달라졌다. 이때부터 교과서는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나는 몇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춘향전>은 ‘우리의 고전문학’(1차 교육과정), ‘고전문학의 감상’(2차 교육과정), ‘고전의 세계’(3차 교육과정), ‘소설’(4차 교육과정) 등의 단원에 수록되었다.

수록된 소설 작품에서도 변화가 있어서, 과도기 교과서와 달리 1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부터는 <왕랑반혼전>이 빠지고 대신 <토끼전>과 <홍길동전>으로 교체되어, 『고등국어』1의 <토끼전>, 『고등국어』2의 <홍길동전>, 『고등국어』3의 <춘향전>으로 고정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3차 교육과정까지 유지되다가 4차 교육과정부터는 <토끼전>이 중등국어 교과서로 옮겨져서 『고등국어』1에는 <홍길동전>, 『고등국어』2에는 <구운몽>, 『고등국어』3에는 <춘향전>이 실렸다. 이는 4차 교육과정 교과서가 텍스트를 창작시거나 내용보다는 갈래에 따라 분류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 <춘향전>은 줄곧 『고등국어』3에 수록되었다.

4차 교육과정까지 줄곧 교과서에 실린 <춘향전>의 저본은 완판 84장본이었다. 해방 이전 완판 84장본이 오래된 <춘향전>의 정본으로 출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정교과서에 완판 84장본이 선택된 점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장지영의 『가려뽑은 옛글』과 방종현의 『문학독본』에 수록한 <춘향전>은 <고본춘향전>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들의 저본이 신문관본인지 아니면 중앙인서관본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인정교과서에서 84장본이 아닌 다른 텍스트를 선택하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84장본은 정본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정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과도기 이후 4차 교육과정까지, <춘향전>의 수록 대목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줄곧 ‘이도령이 장원급제하고 남원으로 내려오는 장면’부터 ‘춘향과 옥중에서 상봉하는 장면’까지였다. 이 장면이 수록된 이유는 아마도 초기 국어교과서 편찬위원이었던 조운제가 1948년 간행한 『국문학사』에서 <춘향전>을 “구사회의 유물인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시민평등의 정신을 힘차게 부르짖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³⁷⁾ 암행어사가 된 이몽

룡이 농부들과 만나는 장면은 김중무가 ‘데모크라시’의 측면에서 주목한 바 있어³⁸⁾ 해방 이전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택된 지문은 원문을 현대어 표기로 고치고 조사와 어미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실었다. 삭제된 대목도 있는데, 삭제된 대목은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더 늘어났으며, 그 뒤 4차 교육과정까지 유지되었다. 삭제된 대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과도기 교과서에서 삭제한 대목
 - 이도령에게 보내는 춘향의 한시
 - 월매가 이도령을 코를 물어뜯으려 하는 장면³⁹⁾

- 1차~4차 교과서에서 추가로 삭제한 대목
 - 어사노정기⁴⁰⁾
 - 춘향의 편지⁴¹⁾
 - 빨래하는 여인들⁴²⁾

84장본은 판소리의 문체적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두 부분이 영웅소설의 유형에 맞게 개작되었으며, 한시문과 전고의 사용도 많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성격의 텍스트이다. 따라서 민중적이면서도 양반적인 취향이 혼재되어 있는데, 과도기 교과서에서는 월매가 이도령에게 달려드는 등의 장면을 삭제하여 비속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춘향의 한시를 삭제하

37)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8, 323면 참조. 조운제가 대학의 교재로 편찬한 『(고등국어)고대문감』에서는 ‘광한루 결연’이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정 교과서와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38) 김중무, 앞의 글, 48면 참조.

39) “화궐에 달려드려 코를 물어 썰는 하니 ‘너 타시제 코 닷신가 장모가 날을 몰나보네. 하날이 무심티도 풍운조화와 뇌성전기난 잇난이’. 춘향모 기가 차서 양반이 그릇되되 갈농조차 드러우나.”(김진영 편, 『<춘향전>전집4』, 박이정, 1997 참조.)

40) “부모전 하직하고 전라도로 행할새, 남대문 밖 썩 나서서…장애미 고개 여산 읍에 속소하고.”(『고등국어3-II』, 문교부, 1952, 103~104면)

41) “일차 이별 후 성식이 적조하니…심량처지 하옵소서”(같은 책, 111~112면.)

42) “오작교 다리 밑에 빨래하는 여인들은 계집아이 섞어 앉아…저희끼리 공론하며 추적추적 빨래하는 모양은 영양공주, 난양공주, 진채봉, 계섬월, 백능과, 적경홍, 심희연, 가춘운도 같다마는 양소유가 없었으니 뉘를 보자 앉았는고.”(같은 책, 113~114면)

였는데 인물의 신분과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1차 교육과정 이후에 추가로 삭제된 대목은, 빠져도 서사전개에 무리가 없는 삽입시문이거나 서사와는 무관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다. 이 같은 번개를 통해서 서술문체나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춘향전>을 ‘근대적인 소설’에 가깝게 보이교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⁴³⁾

4.2.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의 변화

국어교과서의 변화는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난다. 5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용적인 언어능력 교육이 강조되면서 문학의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다.⁴⁴⁾ 수록된 고소설 작품목록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1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홍길동전>과 <구운몽>이 빠지고 <허생전>이 새로 추가되었다.⁴⁵⁾ 또 <홍부전>은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들어갔다가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다시 빠졌다. <춘향전>의 경우 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도 수록되었지만, 수록대목이 ‘신관사또 생일잔치’ 장면부터 ‘어사출도’ 부분으로 교체되었고,⁴⁶⁾ 완판 84장본이 아닌 국립국악원의 국악전집에 있는 창본으로 대체되면서 <춘향가>를 ‘노래와 삶’ 단원에 실었다. 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교과서 내 문학교육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춘향전>의 위상이나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인데, 여기에서는 <춘향전>의 “현재적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⁴⁷⁾ 이는 영화·마당놀이·창극 등을 삽화로 넣는다거나 김영랑의 <춘향>·서정주의 <춘향유문>·서정주의 <추천사> 등의 시를 학습활동 부분에 수록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무엇보다 ‘소단원 개관’에서 “전통이 막연히 어렵

43) 4차 교육과정까지 <춘향전>이 ‘소설’로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5차 교육과정 이후 <춘향전>의 판소리로서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44) 국어과 5차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해서는 황정현, 『제5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어과 교육의 문제』, 『교육한글』 6, 한글학회, 1993, 52~54면 참조.

45) <홍길동전>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46) 조희정, 앞의 논문, 295면의 표에서는 4차 교육과정기부터 어사출도 대목이 수록되었다고 하였는데, 착오가 아닌가 한다.

4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편, 『국어 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고 쓸모없으며 골치 아픈 것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표현이나 사고에 내재해 있는 가치 있는 속성임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설명한 점이 주목된다. 고전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국어1』에 실린 조운제의 <고전문학에 대하여>에서는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바로 “민족의 전통적인 정신”이라고 하면서 “고전문학이야말로 민족 역사창조의 이상을 가장 뚜렷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민족의 역사창조를 위해서 ‘고전’은 당연히 배워야 하고 고전을 익히기 위해서는 ‘옛말’을 익혀야 한다고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전에 대한 이런 당위적 접근이 상당부분 약화되면서 ‘현재적 의의’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민족주의가 더 이상 절대적 명제로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7개정 교육과정 이후 민간에서 간행된 검정교과서에서 좀더 뚜렷해진다. 2007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검정교과서가 사용된 것은 2011년도부터인데, 모두 15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여 간행되었다.⁴⁸⁾ 이들 교과서의 수록작품은 출판사나 편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의 국어교과서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고전’ 텍스트의 의미 역시 기존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7차 교육과정까지 빠짐없이 수록되었던 <춘향전>을 본문의 지문으로 사용하지 않은 교과서가 5종에 이른다.⁴⁹⁾ 그리고 <사씨남정기>, <조용전>, <유충렬전> 등 새로운 작품이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었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흐름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확인해 본 8종의 국어 I 과 국어 II 어느 곳에도 <춘향전>을 본문에 수록하지 않은 교과서는 2종이었다.⁵⁰⁾ 이러한 변화는 ‘고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달라진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48) 교과서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교과서정보관’의 목록 참조.

49) 편의상 출판사와 대표저자만 밝히면 다음과 같다. 지학사(박갑수), 유웨이(박호영), 디딤돌(이상형), 해냄(오세영), 천재(김대행), 두산동아(우한용) 등이다. 해당 출판사에서 간행한 문학교과서 중 해냄(조정래), 두산동아(우한용), 천재(김윤식), 천재(고형진)에도 <춘향전>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50) 교학사(김중신), 비상(우한용)

<춘향전>을 수록한 대목이나 텍스트도 이전과는 달리 다양해졌다. 2007 개정 교과서 중의 일부는 ‘이도령과 춘향의 첫 만남’ 대목을 넣기도 하고,⁵¹⁾ ‘춘향이가 신관사또에게 저항하는 대목’을 수록하기도 하였다.⁵²⁾ 또한 완판 84장본 대신에 김소희 창본⁵³⁾이나 성우향 창본,⁵⁴⁾ 박동진 창본⁵⁵⁾ 등 판소리 창본을 선택한 교과서도 4종에 이른다. 게다가 2009개정 교과서에서는 아예 현대역본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⁵⁶⁾ 이 점에서 고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옛말’을 익혀야 한다고 했던 1차 교육과정과는 다른 의미로 고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5. 결론

20세기 초 <춘향전>은 활자본 소설로 인기를 끌면서 통속소설로 인식되다가 1920년대에 들어서 민중문학론이 대두되면서 ‘평민문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경성제국대학과 국내의 국학연구에 의해 학문의 대상으로 재발견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면 <춘향전>은 해방 이전에 이미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춘향전>의 ‘고전’으로서의 지위나 완판 84장본의 정본으로서의 지위는 교과서에 실리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4차 교육과정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 텍스트에는 ‘고전’을 민족의 정신과 결부시키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었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춘향전>에서는 서사적인 진행과 무관하게 장황하거나 비속한 ‘판소리적인 요소’는 삭제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교과서 속의 <춘향전>은 ‘소설’보다는 ‘판소리’로서 특징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고전’을

51) 금성(윤희원)

52) 신사고(민현식), 교학사(조남현)

53) 천재(김종철), 신사고(민현식)

54) 미래엔(윤여탁)

55) 지학사(방민호)

56) 지학사(이삼형)는 설성경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12: <춘향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을, 해냄(조현설)에서는 조현설 역, 『사랑 사랑 내 사랑아』, 나라말 2010을, 천재(박영목)에서는 송성욱 역, 『춘향전』, 민음사, 2012을 인용.

민족주의의 범주 안에서 파악하던 이전의 시각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단지 ‘옛것’이기에 ‘고전’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글은 <춘향전>이 ‘고전’으로 인식되는 과정과 이것이 부정되는 상황을 되짚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전’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전’의 절대적 가치를 고수하기보다는 그 존재형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매일신보』(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동아일보』(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별건곤』(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문장』(영인본), 문장영인간행회, 1981.
김진영 외 편, 『춘향전전집4』, 박이정, 1997.

2. 교과서자료

-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상』, 군정청문교부, 1946.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중』, 군정청문교부, 1947.
조선어학회, 『중등국어교본 하』, 군정청문교부, 1948.
문교부, 『고등국어3-Ⅱ』, 일한도서, 1952.
문교부, 『고등국어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4.
문교부, 『고등국어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7.
문교부, 『고등국어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57.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고등국어 I』,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3.
문교부, 『(인문계 고등학교)고등국어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0.
문교부, 『국어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5.
김봉근 외, 『국어3』,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국어 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종 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국어 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편, 『국어 상』,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6.
김대행 외, 『국어 I』, 천재, 2007.
김대행 외, 『국어하』,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김병권 외, 『국어 I』, 더텍스트, 2007.
김종철 외, 『국어 I』, 천재, 2007.
문영진 외, 『국어 I』, 창비, 2007.
민현식 외, 『국어 I』, 신사고, 2007.
박갑수 외, 『국어 I』, 지학사, 2007.

- 박영목 외, 『국어 I』, 천재, 2007.
박호영 외, 『국어 I』, 유웨이, 2007.
방민호 외, 『국어 I』, 지학사, 2007.
오세영 외, 『국어 I』, 해냄, 2007.
윤여탁 외, 『국어 I』, 미래엔, 2007.
윤희원 외, 『국어 I』, 금성, 2007.
이삼형 외, 『국어 I』, 디딤돌, 2007.
조남현 외, 『국어 I』, 교학사, 2007.
한철우 외, 『국어 I』, 비상교육, 2007.
김윤식 외, 『국어 II』, 천재, 2007.
김종철 외, 『국어 II』, 천재, 2007.
김중신 외, 『국어 II』, 교학사, 2007.
박영목 외, 『국어 II』, 천재, 2007.
신동훈 외, 『국어 II』, 두산동아, 2007.
우한용 외, 『국어 II』, 비상, 2007.
윤여탁 외, 『국어 II』, 미래엔, 2007.
이승원 외, 『국어 II』, 신사고, 2007.
조정래 외, 『국어 II』, 해냄, 2007.
조현설 외, 『국어 II』, 해냄, 2007.
한철우 외, 『국어 II』, 비상교육, 2007.
김대행 외, 『고등국어상』, 천재, 2009.
김병권 외, 『고등국어상』, 더텍스트, 2009.
김종철 외, 『고등국어상』, 천재, 2009.
민현식 외, 『고등국어상』, 신사고, 2009.
박갑수 외, 『고등국어상』, 지학사, 2009.
박영목 외, 『고등국어상』, 천재, 2009.
박호영 외, 『고등국어상』, 유웨이, 2009.
방민호 외, 『고등국어상』, 지학사, 2009.
오세영 외, 『고등국어상』, 해냄, 2009.
우한용 외, 『고등국어상』, 두산동아, 2009.
윤여탁 외, 『고등국어상』, 미래엔, 2009.
윤희원 외, 『고등국어상』, 금성, 2009.
이삼형 외, 『고등국어상』, 디딤돌, 2009.
조남현 외, 『고등국어상』, 교학사, 2009.

- 한철우 외, 『고등국어상』, 비상, 2009.
김대행 외, 『고등국어하』, 천재, 2009.
김병권 외, 『고등국어하』, 디텍스트, 2009.
김종철 외, 『고등국어하』, 천재, 2009.
민현식 외, 『고등국어하』, 신사고, 2009.
박갑수 외, 『고등국어하』, 지학사, 2009.
박영목 외, 『고등국어하』, 천재, 2009.
박호영 외, 『고등국어하』, 유웨이, 2009.
방민호 외, 『고등국어하』, 지학사, 2009.
오세영 외, 『고등국어하』, 해냄, 2009.
우한용 외, 『고등국어하』, 두산동아, 2009.
윤여탁 외, 『고등국어하』, 미래엔, 2009.
윤희원 외, 『고등국어하』, 금성, 2009.
이삼형 외, 『고등국어하』, 디딤돌, 2009.
조해숙 외, 『고등국어하』, 교학사, 2009.

3. 논저

- 권행가, 『김은호의 춘향상 읽기』, 『한국근현대미술사학』 9,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1, 191~219면.
김종무, 『我觀春香傳』, 『청량』 6호,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8, 36~69면.
김종철, 『관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김태준, 박희병 교주, 『(교주)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서울대 박사논문, 1998, 1~269면.
백현미, 『한국창극사 연구』, 태학사, 1997.
이기대, 『교수요목기 고전문학 관련 교과서의 체제에 대한 연구』,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217~245면.
이용호, 『계명구락부의 조선어사전 엮기』, 『명지대학교논문집』, 1978, 105~138면.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이지영, 『<옥중화>를 통해 본 20세기 초 ‘춘향형상’의 변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37~63면.
이지영, 『일제강점기 고소설의 ‘고전’ 형성 맥락』,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설학회, 2014, 37~66면.
조운제, 『춘향전 이본고1』, 『진단학보』 11, 진단학회, 1939, 94~134면.
조운제, 『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8.

- 조운제, 『교주춘향전』, 박문서관, 1939.
- 조희정, 「교과서 수록 고전 제재 변천 연구」, 『문학교육학』 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277~326면.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 최성환, 「교육과정별 고전소설교육의 변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1~81면.
- 하루오 시라네·스즈키 토미 편, 왕숙영 역, 『창조된 고전』, 소명출판, 2002.
- 허재영, 「건국기의 중등 국어교과서 연구-국정교과서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457~481면.
- 허재영, 「과도기의 국어과 교과서」, 『교육한글』 16·17, 한글학회, 2004, 59~90면.
- 허찬, 「영화 <춘향전>(1923년작)의 지향」, 『열상고전연구』 46, 열상고전연구회, 2015, 525~555면.
- 황정현, 제5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국어과 교육의 문제, 『교육한글』 6, 한글학회, 1993, 41~66면.

The canonization of *Chunhyangjeon* and being included in textbook

Yi, Ji-Young

Chunhyangjeon, the story of Chunhyang, had been enjoyed as the popular novel and entertainment until 1910's. But after 1920's when the 'literary for people' was claimed and the scholars from Keijo Imperial University studied it, *Chunhyangjeon* became accepted as academic subject and classical novel. In those days, although different opinions had been held, the 84-page block book printed in Jeonju was recognized as the original and best text.

The textbooks for high school made after liberation were affected by canon that had been consisted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so *Chunhyangjeon* in the 84-page block book was regarded as the national classic until 1980's. During that period textbooks contained the part of the story from 'the departure of secret royal inspectors' to 'the chunhyang in prison' because they set a high value on the resistance of people as the agent of history. However the text and the part of *Chunhyangjeon* was changed after 1990's when the status of *Chunhyangjeon* as national classic has been weakened. Since 2000's, *Chunhyangjeon* in textbook is contained not to show the national tradition but to show the cultural continuity. So now we are asked to reestablish the value of *Chunhyangjeon*.

keywords: *Chunhyangjeon*, the story of Chunhyang, the value of *Chunhyangjeon*, 84-page block book printed in Jeonju, the textbooks for high school, the national classic, canonization, Keijo Imperial University.

| |
|---|
| 접수일자: 2016. 9. 30. 심사기간: 2016. 10. 1.~2016. 11. 10. 게재결정: 2016. 11. 10. |
|---|